

derstanding that was likely to arise with a "messianic" movement, this designation "the 'Son of Man'" was not only admirably suitable, but was perhaps the only possible one.⁸⁴⁾

84) The author has attempted to demonstrate the thesis here submitted through an exegesis of "the 'Son of Man'" sayings in the Gospels in his book, *"The 'Son of Man' as the Son of God*, WUNT, 1. Reihe (Tübingen: J.C.B. Mohr, 1983). Cf. Marshall, "Synoptic SM", 350f., who arrives at the conclusion very similar to ours. W.G. Kümmel, "Das Verhalten Jesus gegenüber und das Verhalten des Menschensohnes: Markus 8, 38 par und Lukas 12, 8f. par Matthäus 10, 32f.", *Menschensohn* 224, consents to Marshall's conclusion. See further O. Procksch, "Der Menschensohn als Gottessohn"; E. Lohmyer, *Galiläa und Jerusalem* (1936), 35, who in one way or other see Jesus' filial consciousness in his self-designation as "the 'Son of Man'". Cf. also Higgins, *Jesus*, 202, 207f.

□ 학우논단 □

「생명의 양식」 교육課程의 分析과 評價

나 삼 진 (1년)

차 례

序 論

I. 教團의 教會教育論

1. 教團 教育理念 制定의 背景
2. 教團 教育理念과 目的

II. 教育課程 作成의 基礎로서의 教會教育目的과 그 範圍

1. 教育神學者들의 教會教育 目的論
2. 教會教育의 範圍
3. 教材評價의 기준과 方法

III. 「생명의 양식」 教育課程의 分析

1. 유년부 教育課程
2. 중·고등부 教育課程

IV. 「생명의 양식」 教育課程의 評價

1. 「생명의 양식」 教育課程의 특징
2. 유년부 教育課程의 評價
3. 중·고등부 教育課程의 評價
4. 結論的인 提案 - 教團教育의 새 地平

참고문헌록

서 론

急變하는 오늘의 世界와 社會狀況 가운데서 福音을 선포하는 韓國教會 특히 改革主義 神學과 信仰遺産을 물려받은 우리 教團은 教會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靑少年들에게 聖經에 基礎한 教會教育을 시켜야하는 使命을 가지고 있다. 福音에 대하여 가장 수용적인 유년부 어린이들에게나, 宗教的 情諸가 高潮되어 回心の 可能性이 높은 靑少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養育(nurture)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課題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韓國教會는 일찍부터 查經會를 中心한 성경공부에 열심이었던 것은 널리 알려진 바이거니와 1905年 宣教師 公議會가

說立되면서 설치된 주일학교 위원회를 중심으로 教會教育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당면과제들을 처리해 갔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成長은 世界宣敎史상 보기드문 경이로운 현상이라 할 것인데 이를 해석하는 觀點이 다양한 바 社會·政治的인 불안요소에서, 在來의 宗教心性에서, 宗教混合現象에서, 또 宣教師들의 宣敎政策의 影響으로 解釋되어지나 필자의 견해는 이런 요소와 함께 성경공부를 바탕으로 한 初代教會의 부흥과 그로 인해 形成된 福音의인 信仰이 결정적인 役割을 감당했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70年代 후반의 급격한 教會成長과 함께 最近 일어나고 있는 성경공부운동은 韓國教會의 장래를 보아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아지며 “教會를 奉仕하기 위한 神學”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學問的인 입장에서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小論은 이러한 필요에 따라 우리 教會教育의 오늘을 점검하기 위한 方面으로 준비되었다.

우리 教團 教會教育課程 「생명의 양식」은 教團의 教育理念과 目的에 입각하여 성경을 基礎로 집필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성경의 內容이 教會教育의 教育課程으로 어떻게 채택되고 적용되어야만 성경의 記錄目的과 教會教育의 目的을 아울러 達成하게 되느냐는 점이다. 現代社會에 있어서 教會 어린이와 靑少年들에게 이 성경을 가

르침에 있어서 보조수단이 되는 「생명의 양식」이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깨달으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로 응답하도록 教育課程이 편성되었느냐는 점은 教會教育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問題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오늘날 使用하고 있는 유년부 공과본만 아니라 아직 完刊되지 못한 중·고등부 교재를 그러한 次元에서 分析해 봄으로써 보다 완벽한 教材의 編纂과 出版을 위한 지침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 小論은 이러한 의도와 教團教育에의 상당한 애정을 갖고 준비 되었다.

이 小論을 진행해 감에 있어서 제 1장에서 教團의 教育哲學이라 할수 있는 教育理念, 教育目的, 教育目標를 中心으로 教團教育論을 다루게 될 것이며 제 2장에서는 各 教育神學者들이 말하는 바 教會教育 目的論, 범위등을 살피고 이에 根據하여 教材의 평가 기준과 방법을 定할 것이다. 제 3장에서는 「生命的 양식」을 유년부와 중·고등부로 나누어 주제별, 성경사용빈도별, 절기별로 分析해보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살피려 한다. 그리하여 그 분석결과를 제 4장에서 종합 정리하고 보다 알찬 교재의 집필을 위해 몇가지 代案을 제시할 것이다.

이 小論은 연구방법에 있어서 전적으로 문헌연구에 의존한다. 교단에서 발행한 「생명의 양식」 교육과정 유년부(6 권), 중등부(3 권), 고등부(1 권) 등 전 10권을 分析 評價할 것인데 이를 위한 준비로서 神學一般과 基督教 教育學 관계서적을 참고할 것이다.

I. 教團의 教會教育論

1. 教團 教育理念 制定의 背景

우리 教團은 그 출발부터 韓國教會史에서 특이한 양상을 지니고 있다. 日帝末 神社參拜의 강요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의 志操를 지켰던 獄中聖徒들이 改革主意 信仰을 파수하기 위해 設立한 高麗神學校를 母體로 하여 形成되었다. 이러한 “선명한 출발”을 한 우리 教團은 信仰의 正統과

生活의 純潔을 敎團의 理念으로 하고 바른 신앙의 把守를 위하여 노력해 왔다. 1952년 總老會로 모일 당시 306敎會로 出發한 敎團은 계속적으로 成長하여 1960년에 이미 590교회에 달하였다. 이해 승동측과 合同하였다가 3년을 채우지 못하고 還元할 때에는 300여 교회를 잃었고 서울지역을 中心한 中추적인 敎會들을 상실하였으며 敎會의 分裂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쓰라림을 克服하기 위해 학생신앙운동(S.F.C)를 중심한 청소년운동과 유년주일학교를 중심한 敎會敎育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敎團의 敎會敎育에의 觀心은 사실상 60년대 이후로 봐야할 것이다. 1964년 제 14 회 敎團總會의 결의에 따라 總會敎育部에 상설기관으로 전문학자들로 構成된 「敎育課程 審議委員會」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는 改革主義 정신에 입각한 敎會敎育 理念을 세우고 교과과정을 作成하였으며 여기서 유년부 계단공과를 編纂, 發行케 되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낮은반, 중간반, 높은반의 3권으로 出版했다가 1966년 이후 1971년까지 6 개학년의 계단공과를 完刊하였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 시도된 계단공과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1973년 부터는 아동용공과를 出版하여 사용하는바 81년12월에 3版을 發行하였다. 이 유년부 공과와 함께 中고등부 공과도 단계적으로 集積 出版되었는데 중 1은 1970년, 2-1은 71년 12월에, 2-2는 72년 6월에, 중 3은 77년에 나왔는데 그사이 切版이 되었다가 1980년 12월에 와서야 고 1 교재의 發刊과 함께 중 1의 再版을 發行케 되었다. 그 사이에 이「敎育課程 審議委員會」는 「敎會敎育 研究委員會」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敎材編纂委員會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敎團敎育理念과 目的

교단의 敎育理念과 目的은 다음과 같다.

〈敎育理念〉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표준서들(Westminster Standards-신앙고백, 대·소 요리문답, 교회정치 및 예배모범)을 따라 하

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양성한다.

〈敎育目的〉

성경을 가르쳐

- 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며 섬기게 한다.
- ②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도우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한다.
- ③ 자기의 존재의의와 특수한 사명을 자각하여 자기 선 자리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한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육성하여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견비케 한다.

이러한 敎育理念과 目的은 改革主義 神學과 信仰精神이 強力하게 表示되었을뿐 아니라 敎團의 生成過程과 傳統을 集約하는 것이라 볼수 있으며 “한국의 각 교과 중에서 자기 주장을 선명히 한 것”이라고 評價받고 있다.

이러한 敎育理念과 目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시된 各 部의 敎育目標은 다음과 같다.

〈유년부 敎育目標〉

- ① 하나님(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알고 사랑하며
- ② 교회 출석을 잘하고
- ③ 성경을 열심히 읽고
- ④ 부모에게 순종하며 형제로 우애하고
- ⑤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며
- ⑥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 알고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지도한다.

〈중·고등부 敎育目標〉

- 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 ②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 ③ 죄인의 구주 예수그리스도를 받아 들이고
- ④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생활하며

⑤ 교회의 참 뜻을 알고

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기른다.

이 敎團의 敎育理念과 目的에 나타나는 바 敎育의 目標가 지향하는 人格은 위로 하나님 위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함으로써 禮拜的 人格者의 育成으로, 옆으로 他人을 理解하고 사랑하며 도우며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人和協同的 人格者의 育成으로, 自然世界로는 만물을 다스려 하나님께 榮光을 돌리는 文化的 人格者의 育成으로 나타난다. 이 敎團의 敎育哲學에는 「하나님의 主權」을 정점으로하는 改革主義 神學과 精神이 가득차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학생신앙운동(S.F.C)의 「강령」과 함께 이 敎育理念과 目的, 目標는 改革主義 精神에 充溢한 敎團의 信仰告白이라고 불러도 좋을리라고 본다. 그만큼 우리敎團은 改革主義 精神에 입각한 分明한 敎育哲學을 갖고 있는 것이다.

II. 敎育課程 作成의 基礎로서의 敎會敎育 目的과 그 範圍

1. 敎育神學者들의 敎會敎育 目的論

J. Smart는 基督教 牧師로서의 책임을 “基督教 眞理의 모든 소재들을 학생들에게 개방시켜 줌으로써, 학생들은 그들의 全生의 經驗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福音을 알게 된다”고 前提하고 敎會敎育의 參與能을 “人間的 모든 經驗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經驗을 통털어 그 속에서 사람들을 世界問題와 만나게하고 그 問題의 解決이 되는 하나님의 啓示와 만나게 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결국 Smart는 말씀 속에서 오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回心이 일어나며, 동시에 基督信者의 存在樣式은 福音과 말씀의 證言者가 되는 「제자직(discipleship)으로서의 참여」 즉, 「계속적인 基督者의 成長」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 Wychoff는 基督教敎育의 課題를 “敎育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個人으로 하여금 깨닫고 응답하도록 하는 것을 돕고 참여시키는데 있다”

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L. Sherrill은 基督教 敎育이 “實存의 人間들이 하나님과의 關係에서, 교회와의 關係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關係에서, 世界와의 關係에서 심각한 變化가 일어나도록 지도하고 직접 參與하게 하는 基督教 共同體 會員들의 試圖”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에 의하면 基督教 敎育의 核心은 “實存의 自我”가 “機能的 自我”로 變化되는 일인데 그는 이 일을 도울 수 있는 媒体를 바로 聖經이라고 이야기 한다.

결국 基督教 信仰과 基督教의 生活을 土垆하지 않고는 成立할 수 없는 基督教 敎育은 그 자신이 어떤 目的을 가진다기 보다 敎會 共同體의 目的 達成을 위한 科學的이고 效果의인 수단으로 存在해야한다고 할 것이다. 基督教의 人間觀 즉 인간이 하나님의 形像으로 지음을 받은 被造物이라는 事實과 하나님은 모든 眞理와 責任의 根源이라는 事實에 基礎를 두는 基督教 敎育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人間의 役事에 참여하며 그리스도를 닮은(Chritlikeness) 人格을 形成하며, 啓示의 빛 아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關係를 모든 영역에서 유지하면서 살도록 돕는 信仰共同體의 努力”이라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犯罪로 상실된 인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基督教敎育의 목표는 Gaebelein의 지적대로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人格의으로 依託하도록 인도하는 것이요,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께 위탁한 자를 양육(nurture)하는 것”인데 이 두가지 면을 우리는 神學的 해석에 의해 「回心」과 「聖化」라고 할 수 있다.

2. 敎會敎育의 範圍

敎育課程 作成에 있어서 範圍의 問題는 “어떤 것이 敎育과정에서 포함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인데 Wychoff에 의하면 “복음의 빛 안에서 보여지는 關係의 모든 영역을”(whole field of relationship in the light of the gospel)이라고 하고 그 내용은 성경, 교리, 교회론, 교회사, 교회의 사명, 인간관계, 自己實現, 기독교인의 삶 등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예일대학교 교수 Miller는 성서를 기독교 敎育의 소재로 할 때 5C라

하여 Creation(창조), Covenant(언약), Christ(그리스도), Church(교회), Consummation(완성)등 다섯가지를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다. Sherrill은 창조, 주되심, 소명, 심판, 구속, 재창조, 섭리, 그리고 신앙생활등 8가지를, H. W. Byrne는 성경, 신앙, 기독교적 삶 속에서의 인간경험, 기독교 가정, 교회생활과 확장, 사회적인 문제, 세계와의 관계, 봉사와 기독교 지도력등 8가지를 포함시켰다. 참고로 밀러 교수의 지도하에作成되고 지금 미국교회에서 사용되는 C. C. P. (Cooperative Curriculum Project)의 내용構造는 매우 입체적으로作成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삶과 그狀況-實存의意味와 經驗(Life a Its setting: The meaning Experience of Existence).

啓示-하나님의自己啓示의意味와 그 經驗(Revelation: The meaning and Experience of God's Self - Disclosure)

아들되심-구속의意味와 經驗(Sonship: The meaning and Experience of Redemption)

職業-제자작의의마와 經驗(vocation: The meaning and Experience of Discipleship)

教會-基督教 共同体의意味와 經驗 (Church: The Meaning and Experience of Chrisican Community)

3. 教材評價의 基準과 그 方法

앞에서 教會教育의 目標과 範圍를 淸楚함으로써 하나님(아버지, 성자, 성령)과 믿는자와 그 共同体인 教會와 自然世界등이 淸楚로 그 內容에 포함되어야 함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정점으로 하는 칼빈주의 神學的 要求에 合致하는 것이며, 우리 教會 教育의 理念에 一致되는 것이다. 이것을 基準로 하여 다음과 같이 그 評價基準을 說定할 수 있다.

① 教材作成에 있어 그 目標는 基督教 教育目的과 一致하여야 한다는 점.

② 教育課程의 범위인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교회, 이웃, 자연계, 선교등 淸 概念이 均衡있게 淸楚해져야 한다는 점.

③ 성경의 完全性을 믿는 改革主義 聖經觀에서 볼 때 教育課程作成上 聖經全書 66권의 使用은 均衡있게 淸楚되어야 한다는 점.

④ 教育課程 作成上 被教育者의 心理的, 身體的, 思考的, 情緒的, 靈的인 發達과 淸楚를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는 점.

⑤ 뿐만아니라 教會節期, 儀式등이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생명의 양식」을 評價하되 그 範圍가 얼마나 淸楚로 다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問題를 검토해 볼 것이다.

Ⅲ. 「생명의 양식」 教育課程의 分析

1. 유년부 教育課程

위에서 살핀 評價基準과 그 方法에 따라 유년부 6개년 전 과정의 內容을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기별 주제

< 1 학년 >

주일학교..... 1 과	요셉의 이야기 5 과
예수님..... 6 과	이스라엘의 영도자 9 과
착한 어린이 5 과	하나님의 세계 4 과
아담과 노아 3 과	기쁜 소식 2 과
아브라함의 이야기 8 과	예수님의 행적 9 과

< 2 학년 >

우리들의 교회당 1 과	여호수아 장군 8 과
예수님..... 7 과	하나님의 세계 4 과
착한 어린이..... 6 과	성탄절..... 2 과
가나안으로 가는 길..... 16과	예수님의 행적 8 과

〈3학년〉

예수님..... 8과	가나안을 정복함 7과
교회의 시작 2과	우리 하나님 5과
우리 가정 2과	성탄절..... 3과
땅끝까지 전파된 복음..... 8과	예수님의 행적 5과
이스라엘의 영도자 10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3과

〈4학년〉

예수님..... 11과	예수님의 탄생 4과
번져가는 복음 11과	예수님의 행적 5과
다윗과 솔로몬 13과	예수님의 교훈 5과
하나님..... 3과	

〈5학년〉

마음의 안식처 1과	구약 성경..... 5과
예수님..... 5과	영원한 나라 5과
성령님..... 2과	하나님의 세계 3과
우리 이웃 4과	그리스도의 탄생 2과
교 회..... 4과	예수님의 행적 6과
성경이야기..... 10과	예수님의 교훈 5과

〈6학년〉

우리 교회..... 1과	성경개론(신약)..... 6과
예수님..... 5과	영원한 나라 3과
성 령..... 3과	기 도..... 2과
우리 가정 2과	그리스도의 탄생 2과
우리 이웃 4과	예수님의 행적 5과
교 회..... 2과	예수님의 교훈 5과
성경이야기(구약)..... 10과	소 명(선교)..... 2과

(2) 주제별 分析

유년부 6개년 전 313과를 주제별로 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

주제별 분류

주 제	1	2	3	4	5	6	계	%
하 나 님			5	3			8	3
예수그리스도탄생	2	2	3	4	2	2	15	5
" 생애	6	7	8	16	11	10	58	19
" 교훈	9	8	5	5	5	5	37	12
성 령 님					2	3	5	2
성경이야기(구)	12	16	7		10	10	55	18
" (신)			3				3	1
신 앙 인 물	13	8	10	13			44	14.5
신 앙(교리)						2	2	0.8
내 세 론					5	3	8	2.5
교 회 론	1	1	2		5	3	12	4
가 정			2			2	4	1.5
이 웃					4	4	8	3
전 도 · 선 교			8	11		2	21	7
생 활	5	6					11	4
자 연 세 계	4	4			3		11	4
성 경	●				5	6	11	4
계	52	52	53	52	52	52	313	

위 표에서 쉽게 얻어지는 바와 같이 「생명의 양식」(유년부)의 敎育 課程은 예수그리스도의 탄생, 생애, 행적, 교훈을 찾는데 초점이 모아져 있다.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敎科가 전체 313과중 105과(36%)를 차지하고 있다. 그외에 두터러진 교과는 信仰人物의 生涯를 중심한 성경 이야기들이 전체 102과(32%)에 이른다. 이 두가지 主題가 信仰生活의 모든 부분을 포괄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전체의 70%에 가까운것은 극심한 교과과정 불균형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외에는 傳道와 宣敎에 관한 문제가 모두 21시간(7%)으로 비교적 적당히 할애되어 있는데 성경, 자연세계, 생활에 대한 교과도 각각 11시간(4%)씩을 차지하고 있다. 5, 6학년에서 天國을 중심한 來世論을 다루는 것도 주목할만 하다.

(3) 성경사용빈도 집계 (신약)

성경사용빈도집계 (신약)

<표 II>

<표 V>

유 년 부								성 경	중 · 교 등 부					
1	2	3	4	5	6	계	%		중1	중2	중3	고1	계	계
9	9	6	7	6	9	46	25	마 태 복 음	7	4	17	5	33	26
4	5	2	2	4	1	18	9.7	마 가 복 음	1			1	2	1
6	3	8	8	1	1	27	15	누 가 복 음	3	5	8		16	13
1	2	4	4	10	15	36	19.5	요 한 복 음	3	5	4		10	8
1	1	11	14	1	2	30	16	사 도 행 전	4	5	6	1	16	13
	1			2	1	4	2	로 마 서	2	4	1	5	12	10
			1			1	0.5	고 린 도 전 서	2	1	3	2	7	6
								고 린 도 후 서	1				1	1
								갈 라 디 아 서			1	1	2	1
1		1	1		1	4	2	에 베 소 서	1	2	1	2	6	5
								빌 립 보 서						
				1		1	0.5	골 로 새 서				1	1	1
		1		1		2	1	데 살 로 니 가 전 서						
								데 살 로 니 가 후 서		1			1	1
1				1	1	3	1.6	디 모 테 전 서	1		1	1	3	2
				1		1	0.5	디 모 테 후 서	2			2	4	3
								디 도 서						
								빌 레 몬 서		1	1	1	3	2
				4	4	2		히 브 리 서	4				4	3
				1	1		0.5	야 고 보 서			1		1	1
								베 드 로 전 서						
								베 드 로 후 서	2				2	1
				1	1		0.5	요 한 1 서						
								요 한 2 서						
								요 한 3 서						
								유 다 서						
	1			1	3	5	2.7	요 한 계 시 록				1	1	1
23	22	33	37	29	40	184		계	33	26	45	23	125	

<표 II>는 6년의 교과과정에서 신약성경은 어떻게 본문으로 읽혀지며 가르쳐지고 있는가? 는 문제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6년간 총 313과 중 신약성경은 184시간에 걸쳐 사용되므로 60%에 달하는 분량이다. 그중에 마태복음이 46시간으로 25%를 차지하고 있고 마가복음 18회(9.7%), 누가복음 27회(15%), 요한복음 36회(19.5%) 등 4복음서를 합치면 27회로 69.2%에 걸쳐 본문으로 사용된다. 마태복음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성경은 사도행전인데 30시간으로 16%를 차지하며 요한계시록이 5회(2.7%), 로마서, 히브리서, 에베소서 각각 4회(20%), 디모데전서가 3회(1.16%) 데살로니가전서가 2회, 그리고 한번 사용된 성경이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야고보서, 요한 1서들이다.

6년동안 한번도 다루지지 않은 성경은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베드로서신(전후서), 요한 2서, 3서 등 10권으로 30%를 뒀고 있다.

(4) 성경사용 빈도 집계 (구약)

6년간 총 313과가 구약본문을 사용하면서 교육되는 교과는 모두 129과로 전체의 4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I 참조>

<표 III>

성경사용빈도집계 (구약)

<표 VI>

유 년 부								성 경	중 · 교 등 부					
1	2	3	4	5	6	계	%		중1	중2	중3	고1	계	%
17	4	1	1	4	2	29	22	창 세 기	11			5	16	19
10	5	10		1		26	20	출 애 굽 기	1	1	1	2	5	6.1
1	2			1		4	3	레 위 기	1			2	3	3.7
	7	1				8	6	민 수 기		1		1	2	2.4
	2			2		4	3	신 명 기	1	1		4	6	7.3
	8	6				14	11	여 호 수 아		3		1	4	4.9
								사 사 기		2		1	3	3.7

〈중 2〉

소요리문답(구원의 길) 11과
출애굽과 사사시대 8과
이스라엘 왕국(I) 4과
이스라엘 왕국(II) 3과
포로이후 시대 4과
한국의 초대교회 9과
해방이후의 한국교회 7과
절 기 6과

〈중 3〉

신자와 사회생활 11과
신약성경(예수님의 생애) 20과
소요리문답(주기도문) 10과
전도와 선교 6과
절 기 5과

〈고 1〉

교회교육의 기본과제 3과
구약총론(I) 10과
구약총론(II) 10과
소요리문답(하나님) 12과
세계 교회사(고대) 6과
우리 주변의 종교들 6과
한국 장로교회사 5과

(2) 主題別 分類

위에 제시된 전 4개학년 214과를 다시 主題別로 分類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주제별 분류

〈표 IV〉

주 제	중 1	중 2	중 3	고 1	계	백분율
신자와교회생활	5				5	2%
성 경	4				4	2%
성경이야기(구약)	10	19			29	14%
소요리문답	12	11	10	12	45	21%
성경과과학	6				6	3%
성경지리	8				8	4%
전도와선교	5	6	6		17	8%
교회사(한국)		16		5	21	9%
교회사(세계)				6	6	3%
사회생활			11		11	5%
예수님의생애			20		20	9%
교회교육론				3	3	1%
성경총론(구약)				20	20	9%
주변종교				6	6	3%
절 기	5	6	5		16	8%
계	55	58	52	52	214	

중 1부터 고 1까지 4개학년 교과목 총 214과 중에서 소요리 문답이 45과목(약23%)으로 제일 많고 다음이 구약성경역사(이야기)가 29과목(14%), 한국교회사가 21과목(9%)이며, 예수님의 생애가 20과목(9%)으로 나타나는 바 처럼 각 과목이 教科目標에 대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바는 성부하나님이 소요리문답 공부를 통하여 13과로 12%, 성자 예수님의 生涯의 이야기가 21과로 10%인 반면 聖靈과 그 事役에 대한 교과는 단 한시간도 없으며, 教會論에 대한 교과가 4시간으로 2%, 社會에 대한 교과가 6시간으로 3% 정도인 반면, 韓國教會史는 21시간으로 10%를 잇도는 극심한 불균형 현상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더구나 自然界에 대한 공부도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소요리문답을 다루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면

서 약간 다를 뿐이다.

(3) 성경사용빈도 집계 (신약)

그러면 4년의 敎育課程 중에서 신약성경은 어떻게 本文으로 채택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표 V 참조>

4년의 교과 중에서 신약성경의 사용은 마태복음 33회, 마가복음 2누가복음 16회, 요한복음 10회로 4 복음서가 66회에 걸쳐 本文으로 사용된다. 이는 신약성경사용에 대하여 127회중 50%를 상회하는 분량이며 신구약 214회 중에서 30%를 율하고 있다.

신약성경 중에서 5회이상 사용된 성경은 마태복음(33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각 16회) 로마서(12회), 요한복음(10회), 고린도전서(7회), 에베소서(5회)등이며 한차례 사용된 성경은 고린도후서등 5권, 한번도 본문으로 사용되지 않은 성경은 빌립보서를 비롯한 7권으로 신약 25%에 해당하는 것이다.

(4) 성경사용빈도의 집계 (구약)

4년의 교육과정 중에서 구약성경은 얼마나 本文으로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VI 참조>

위 표 III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년의 교과과정 중에서 구약성경이 본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교과는 총 82회에 걸쳐 전체의 약 30%정도에 해당한다. 구약성경의 경우 가장 많이 본문으로 다루어지는 성경은 창세기인데 17회로 구약전체의 20%이며 총 214과 중 8%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구약 성경 중 5회 이상 사용된 성경은 신명기, 사무엘상, 시편(이상 6회)등이고 한차례 사용된 성경은 룻기등 12권인데 대개가 구약 총론(I·II)를 위하여 형식상 本文으로 사용하였을 뿐 실제 敎育的인 次元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드물다. 구약 82회 중 한번도 本文으로 사용되지 않은 성경은 에스겔, 호세아등 12권인데 이는 구약 39권의 33%에 해당하는 것이다.

으로 그 으뜸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학년별로, 또 내용별로 세분하여 본다면 중 1과정에서 「10계명」(12시간)을 중 2과정에서 「구원의 길」(11시간)을 중 3과정에서 「주기도문」(10시간)을 그리고 고 1과정에서

「하나님」(12시간)에 대하여 가르쳐지고 있다. 이 敎理敎育에의 치중은 靑少年들로 하여금 확고한 信仰을 확립케 함에 있어서 귀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겠는데 이 「생명의 양식」 敎育課程을 사용하지 않은 敎會 가운데서도 더러 소요리문답만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敎회가 있기도 하다.

중고등부 敎育課程에서 또 다른 한 특색을 든다면 구약성경에 대한 공부가 상당히 배려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미 살핀바이지만 유년부의 경우 313과 중 신약이 184과로 60%, 구약이 129과로 40%인데 비해 중고등부에 오면 전체 214과 중 신약이 125과로 58% 구약이 82과로 30%로 구약성경의 공부가 상당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구약성경이야기가 중 1에 「창세기의 사건들」로 10시간, 중 2에 출애굽시대부터 포로이후 시대까지 19시간, 고 1에서는 예언서를 제외한 전구약의 총론을 다루면서 20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단순히 본문으로만 채택된 것을 제외하고라도 65시간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분량이다.

2. 유년부 교육과정의 評價

앞에서 우리는 유년부 敎育課程의 두가지 특색을 聖經中心의이라고 것과 그리스도 中心的이라고 살폈고 중고등부 敎育課程의 특색이 敎理中心的인 것과 舊約聖經을 상당히 다루고 있다는 점을 살폈다. 이 4가지 사실은 「생명의 양식」 敎育課程의 매우 긍정적인 면이라고 지적될 수 있는 바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보다 면밀히 敎育過程을 살펴보면 상당한 問題點이 있음을 지적할 수 없다. 이제 주로 유년부 敎育과정에서 止揚해야할 점들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 교재는 敎育목표에 대하여 具體的이지 못하다는 事實이다. 우리 교단의 敎育目標은 「성경을 가르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도우며 자신의 存在意義와 特殊한 使命을 자각하여 자기 선 자리에서 맡은 일에 忠誠하게 하는데」이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양식」 공과에서 가르쳐지는 대개의 성경이야기는 실제 生活에 적용하는데 나가고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유년부 敎育課程에는

나와 세계, 나와 이웃, 나의 使命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있는데 가정문제에 4시간, 이웃에 대해 8시간, 自然世界에 대해 11시간만을 할애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教育課程으로써 어린이들에게 文化的 使命을 길러주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생명의 양식」 교육과정은 우리의 教育목표인 “三位一體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매우 不均衡하다. 이는 다음에 살필 중고등부 과정에서 두렵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과가 105과 (36%)인 반면 성부하나님에 대하여 8과 (3%), 성령님에 대한 교과가 5과 (2%)로 나타난다. 더구나 성부하나님은 3, 4학년에만, 성령하나님은 5, 6학년에만 소개되고 있는바 이것은 바르지 못하다고 보겠다. 외국의 많은 어린이용 교재나 국내의 다른 교과과정은 이처럼 불균형하지는 않다. 특히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의 方法은 올바르게 개발될 수 있어야 하리라 본다.

네번째로 지적되어야 할 점은 성경이야기의 지나친 偏重성과 함께 성경의 本文 使用에 있어서의 극심한 不均衡現像이다. 앞선 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구약의 경우는 모세 5경이 71시간으로 구약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고 많이사용된 여호수아와 王國의 歷史를 다루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합치면 모두 92시간에 70%를 차지하게 된다. 신약도 비슷한 현상인데 예수님의 生涯와 教訓을 담은 福音書를 本文으로 택하고 있는 교과가 127과로 전체의 69.2%를 점하고있다. 그외에 初代教會의 福音傳道의 歷史를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이 30과로 12%에 해당할 뿐 初代教會의 倫理와 生活의 問題를 다룬다고 볼 수 있는 書信書들은 일반적으로 教育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성경이야기에 있어서도 모세오경을 중심한 성경이야기와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한 이야기, 족장들의 이야기들이 집중적으로, 그리고 족장이후 가나안 정착까지에 대한 내용이 각 학년에 골고루 나뉘어 상세하게 가르쳐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教育 가운데서 한사람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과를 할애하거나,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서에만 편중되어 가르쳐 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레위기서의 제사법도, 신명기에 나타난 모세의

위대한 설교도, 사사기에 나타나는 믿음의 용사들에 대한 가르침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행적이나 아름다운 聖詩의 背景이나 그 교훈뿐아니라 선지자들의 社會正義의 事役들도 마땅히 가르쳐야 된다고 본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착까지의 과정에서 겹치는 경우가 더러 있고 예수님의 행적 또한 그러한데 이러한 것들이 一貫性있는 題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5) 절기공과의 分析

유년부와는 달리 각 공과의 부록으로 되어있는 절기용공과의 경우 4년의 教育課程을 합쳐 16시간인데 그중 새해(신년 주일) 3회, 부활절이 4회, 어버이주일이 3회 등이며 고1의 경우 절기공과는 전혀 수록되지 않고 있다.

VI. 「생명의 양식」 教育課程의 評價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공부의 시간은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어린이들이나 靑少年들로 하여금 보다 성경의 內容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그 말씀속에서 役事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生의 經驗을 갖게하며, 現實生活에서 基督敎의인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어린이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또 적용되어야만 할 問題이다. 그런 意味에서 教育의 가장 중요한 media가 되는 教材의 重要性을 再認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小論에서는 教育神學的인 입장에서 教育課程 作成에 따른 基礎的인 理論을 제공하고 그 原理에 의해 「생명의 양식」 유년부, 중고등부의 공과를 分析하였다. 여기서 마땅히 다루어야만 할 광범위한 神學的인 問題, 基督敎 教育의 理念이나 價値觀 問題 용어선택과 被學習者의 心理의 情諸的, 靈的 發達에 따른 段階的인 教育問題, 出版에 대한 문제등 全體를 취급지 못하고 다만 내용에 나타난 教育내용, 성경내용, 절기내용 등만 分析하였다. 이 分析의 結果로 나

타난 공과의 특징을 먼저 살피고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지적한 후 보다는 공과의 개정판의 출판을 위해 몇가지 提案을 하며 이 글을 마무리 하려 한다.

1. 「생명의 양식」 교육과정의 특징

먼저 「생명의 양식」 교육과정이 강한 특징은 성경의 完全性에 그 배경을 둔 聖經中心의인 教育課程 (Bible-Centric curriculum)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教育目的에서 밝혀지고, 教育課程에 그대로 반영이 된 문제인데 教育目的의 초두에 “성경을 가르쳐”라는 말은 教會教育의 출발점이 啓示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것은 不完全한 인간의 여러 가지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特別啓示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바로 알 때 被造物인 人間을 알게 되고 이세상의 모든 意味가 發見된다는 사실이다.

「생명의 양식」 教育課程에서 성경은 유일한 텍스트(Text)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교육적인 책」인데 하나님의 創造의인 救贖事役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教會는 이 성경을 가르침으로 피교육자들이 예리스토 안에 啓示된 그의 구속적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성장하며,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되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基督教 共同體의 일원이라는 것을 점차 認識하게 되고, 이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바른 제자직을 수행케 된다. 성경은 이처럼 基督者의 삶의 方向에서 인간의 경험을 解釋하고 評價할 뿐 아니라 삶의 方向을 제시 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특수은혜를 물려받은 수단으로 나타난다. L. Sherrill은 일찌기 教會教育에 있어서 성경의 使用目的이 “聖經 자체의 本성과 一致해야 하며 성경이 증거하는 啓示의 本성과도 一致해야 한다”고 갈파하였는데 실로 「생명의 양식」 교육과정은 聖經中心의인 教課過程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教育課程의 두번째 특징은 그리스도 中心의인 教育課程 (Christ-centric Curriculum)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특별히 유년부의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現象인데 6년과정 총 313과 중에서 그리스도

를 主題로 다룬 공과는 모두 105과로서 전체의 36%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평균 3시간에 1시간은 예수그리스도를 主題로 한 공부를 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표 I>에 나타나는 바대로 그 과정을 좀더 세분하면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마다 나타나는 탄생의 기사가 15시간(5%), 생애와 행적에 관한 교과가 58시간(19%), 또 그의 가르침과 교훈에 대한 교과가 37시간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간접적으로 그 가르침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과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聖經中心의이고, 그리스도 中心의인 教育課程이 유년부 교육과정의 강력한 특색이라고 한다면 중·고등부 教育課程의 가장 강력한 특색은 아무래도 敎理教育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리교육은 특별히 敎團이 信條로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등을 中心하여 展開되는데 소요리문답을 공부하는 시간이 45시간

그리고 「생명의 양식」 교육과정에서 참된 宗教生活을 위한 가르침이 부족하다. 예배의식이나 전도나 기도에 대한 單片的인 가르침이 있기는 하나 매우 미흡하다고 본다. 信仰生活에 대한 具體的인 方法論도 教育되어야만 한다. 그외에도 韓國教會 歷史에 대한 언급이나, 初期 宣教師들의 來韓宣敎에 대한 교과가 전혀 설정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나, 교단의 出發過程에 대해 혹은 우리의 信條에 대한 가르침들이 追加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3. 중·고등부 교육과정의 評價

유년부 교육과정에 이어 중고등부의 4개년의 교육과정의 分析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고등부 4년의 교육과정에서는 소요리 문답을 中心한 敎理가 전체의 21%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구약이야기(14%) 한국교회사(10%) 등이며 가장 적은 부분은 성경 자체에 관한 것과 교회교육 일반론 등인데 1%정도이다.

다음으로 三位一體 하나님에 대한 교육에 그 均衡이 상실되고 있는데 성자에 대한 교과가 20과, 성부에 대한 교과가 12과인 반면 성령에 대

한 가르침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유년부를 수료하였고, 중등부를 거쳐 고등부 2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은 적어도 「생명의 양식」 교육과정으로 계속 聖經工夫를 하였을 경우 유년부 5학년에서 2시간, 6학년에서 3시간 공부할 하였을 뿐 적어도 성경공부를 통해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볼 수 있다.

세째로는 組織神學的인 接近을 시도하여 얻은 結論인데 「생명의 양식」 중고등부 교육과정은 그리스도의 몸된 「教會論」에 너무 무관심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問題이다. 전체를 分析해 볼 때 중등부 1학년에서 「신자와 교회생활」의 단원을 통하여 새사람, 교회에서 배우는 것, 신자와 예배, 신자와 기도, 우리교회등 일반적인 내용의 다섯과를 할애하고 있을 뿐 교회의 등의 문제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개인적 종말론(死後世界)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은 다루는 우주적 종말론에 대해서도 전혀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

네째로는 성경의 本文으로서의 사용에 균형을 잃고 있는데 신약과 구약의 본문 사용이 127회(60%), 82회(40%)로 6 : 4 비율인 것은 비교

바람직하다고 보겠으나 신약의 경우 4복음서를 30%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사용된 선전 다섯 마태복음(23회), 창세기(17회) 누가복음 및 사도행전(각 16회), 로마서(12회)를 합치면 모두 94회로 이는 전체의 45%를 차지하는 분량이다. 특히 앞서 지적한 바 대로 한차례 사용된 성경은 신약 5권 구약 12권으로 성경전체의 25%이며 한번도 본문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성경이 신약 8권 구약 12권으로 성경전체의 30%인데 1회이하 사용된 성경 37권은 전체 성경 56%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유년부 뿐 아니라 중고등부에서도 소선지서에 대한 가르침은 거의 없다고 보겠는데 이것은 靑少年들로 하여금 先知者들에 대한 행적에 무관심 함으로서 그리스도인의 社會的 使命을 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소선지서들을 한낱 “지푸라기 문서”로 생각함으로써 그릇된 聖經觀을 심어 줄 可能性이 內在해 있다.

그외에도 教團의 歷史를 포함하여 韓國教會史가 지시간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함에 주목할 수 있다. 이는 교단의 出發 당시의 韓國教會史

的背景을 염두에 둘 때 교단의 高神性 定立을 위하여 理解될 수 있는 問題라고도 볼 수 있으나 중2의 「해방이후의 한국교회」(7과)와 고1의 「한국 장로교회사」(5과)의 중복되는 부분은 고쳐져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그리고 유년부의 教育課程과는 달리 교회의 주요한 절기에 따라 절기 공과를 부록으로 첨부하고 있는데 교회의 4대절기 중에서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집중되어 있는데 맥추절에 대한 교과는 한시간도 없고 일반 절기의 경우 新年主日과 어버이主日만 포함되어 있을 뿐 광복절이나 3.1절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교단의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制定했던 S.F.C.主日에 대한 교과도 1시간도 할애되지 않고 있고, 교단의 꽃이라 할 수 있는 S.F.C.에 대해서도 어떻게 시작했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신앙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언급조차 없으므로 S.F.C.의 學園福音化運動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게 한다.

4. 結論的인 提案-教團教育의 새 地平

교단에서 출판 보급하고 있는 「생명의 양식」은 교단의 대부분의 教會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教團教育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므로 실로 무거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등부 교재의 보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 내용이 一方傳達式 教育이므로 많은 일선 담당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일이 많다. 그래서 실무자들의 個人的 취향에 따라 교단 공과 또는 宣敎團體의 성경공부 教材를 無批判的으로, 無分別하게 導入하여 使用하는 바 이는 教團的인 次元에서 심각하게 反省하여야 할 문제로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出版을 시작한지 10년이 넘도록 大學部 教材는 물론 중고등부 6개년의 교재를 完刊치 못한 것은 ‘教會教育의 無觀心, 외에는 다른 말로 表現할 수 없다할 것이다.

이제 이 小論을 마감하면서 보다 알찬 教團教育의 來日을 내다보며 이 논문에서 얻은 結果로 몇가지 基本的인 提案을 할 수 있다.

먼저, 教材는 改革主義 및 基督教 教育學과 教團의 教育哲學에 입각

한 分明한 커리큘럼의 作成과 그것을 基礎하여 집필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이나 청소년 스스로 追求하고 結斷하고 創造的인 學習을 하도록 案内하고 유도하는 면으로 發展되어야 한다. 전 10권의 교과서들을 면밀히 살리게 될 때 어린이나 청소년의 마음 깊은 곳을 향하여 한마디의 挑戰도 보이지 않는 바 이는 공과책 중심이고 전달식 교육의 약점과 함께 「생명의 양식」 교육과정이 안고있는 根本的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새로운 教育課程이 만들어질 때나 남은 고 2, 고 3, 대학부에 教材 集필에는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와 靑少年들의 다양한 要求와 狀況에 맞도록 計劃되어야하고 主題, 聖經, 內容등이 그들의 觀心과 內的 要求를 충족시켜 주도록 作成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보다도 對話의 原理에 입각한 다양한 討論式 方法들이 啓發되어야만 한다.

세째, 본 연구의 教育目的과 그 範圍에서 심각한 바 教育의 範圍가 되는 하나님(성부, 성자, 성령), 教會論, 救援論, 성경이야기, 教會史, 이웃, 社會, 自然世界등이 均衡있게 다루어져야만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성경의 本文選擇이 어느정도 폭넓게 고려되어 新구약 전체가 어느정도 均衡있게 다루어 져야만 할 것이다.

네째로 節期教育이 등한시되고 있는 바 절기 혹은 儀式을 통한 教育의 效果를 감안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로 教材는 반드시 神學的인 전문지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教育學的인 識見을 가진 이들의 치밀한 검토 끝에 集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총회 教育국과 神學大學院 사이에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總會教育局에 이를 전담하기 위한 총무와 담 연구원들을 두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해 가야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冊으로서의 출판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오늘날 어린이 교육에 어느때 보다도 관심이 높고 靑少年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는 이때 한국교회에서 어린이 教育과 靑少年 教育의 專問化가 시급하며 教材의 다양한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보다 성숙한 基督者에의 熏

련을 위하여 범교단적으로 教會教育의 중요성과 時急性을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이 小論에서는 教育내용의 理論神學的 接近은 물론, 教育내용의 보다 면밀한 價値觀的 유형분류가 불가능하였던 바 이부분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이루어져 教團 教會教育에의 地平을 넓혔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교육부 편, 「생명의 양식」(유년 1-고 1 : 전 10권)
- 강용원, “기독교 교육의 이념과 전망” 고신회보 1호(1980. 12), pp-16-17
- 김형태, 기독교 교육의 기초, 서울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육부, 1980.
- 손승희, “한국 기독교 교육의 가치관-현재 사용하는 Curriukom 분석” 신학사상 20, (1978, 봄) pp. 5-40.
- 은준관, 教育神學, 서울 : 대한기독교 서회, 1976.
- _____, 왜? - 기독교 교육 목적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선교 교육 연구원, 1980.
- 정정숙, 교육신학에서 본 한국교회학교 공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72.
- _____, 기독교 교육 과정론, 서울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교육부 1980.
- 주선애, 교육과정지침, 서울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교육부 : 1972.
- Sherrill, L. J., The gift of Power (김재은 강귀옥 역, 만남의 기독교 교육, 서울 :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1.
- Miller, Biblical Theology and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6.

韓國産業社會와 教會急增現象과의 相關性 및 教會의 指向點에 關한 研究

신 원 하 (1년)

목 차

- I 장. 머리말
- II 장. 60~70년대 한국사회구조
 - 1. 근대화와 경제성장
 - (1) 경제구조 : 산업화
 - (2) 생태구조 : 도시화
 - 2. 대중사회도래와 교회급증현상
- III 장. 교회급증 현상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
 - 1. 무능력 (Powerlessness) 감
 - 2. 무의미 (Meaninglessness) 감
 - 3. 무규범 (Normlessness) 감
- IV 장. 산업사회와 교회의 지향점
 - 1. 한국교회의 현모습과 문제점
 - 2. 산업사회와 한국교회 과제
- V 장. 결론

I 장. 머리말

일찌기 우리나라의 교회성장 현상을 R·E·Shearer는 들불(Wildfire)이라고 표현한바 있었는데¹⁾ 지난 60·70년대 한국교회는 이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요원의 불길처럼 성장이란 과녁을 향해 폭발적으로 번져 나갔다. 그리하여 이제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우뚝 솟은 교회의 모습과 교회당 건축하는 망치소리를 어렵잖게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밖에 안된 한국 교회가 이처럼 엄청난 성장을 한데 대해 일단 우리는 복음이 편안하게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교회의 현상에 대해 마냥 바람직한 현상으로 여기는데 그칠 수 없음은 이 현상이 여러 가지 문제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대형화 귀족화 현상은 이미 세인의 주목을 끌고 있고 특히 교회양산(量産) 현상은 비난의 대상으로까지 비화되었다. 서울의 모 신혼아파트 단지의 한 상가건물 안에는 무려 10여개의 개척교회가 밀집하고 있어 마치 난립하는 복덩방과 같은 세속적인 인상을 풍기면서 교인 쟁탈전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어 가히 “중교상인”으로 불려질 만큼 세인에 눈에 심각하게 비춰지고 있다.²⁾

현금의 교회의 거대화, 도시의 밀집, 지나친 양산 현상등이 사회에 미치는 기능적인³⁾ 문제가 점점 사회윤리적인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이 현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위와같은 맥락하에서 이 글은 쓰여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Roy E. Shearer, wildfire : Chusch Growth in Korea, William B.Eerdmans Publishing Company, Grand Rapids, Michigan, 이 책은 특히 1950년대까지의 한국교회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1981년 9월~11월 사이의 일간 신문에 하루걸러 기사화될 정도로 심각하게 다루어졌다.
 3) 여기서 사용하는 기능(function)이란 말은 Robert K. Merton의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순기능(eufunction)과 역기능(dysfunction)을 다포함하고 있는 것이다.